

‘무엇이 창작인가’ 본질적 질문 직면… 기준·규제 등 논란

창작의 경계 흔드는 AI

기준에 따라 ‘창작품-쓰레기’ 오가
저작권 침해·책임소재 등 논쟁 격화
“지금 필요한 것은 성찰하는 태도”

생성형 AI가 음악·문학·미술 전 분야로 확산하면서 AI 거버넌스(운영 체계) 전문가, 예술계와 세계 최대 동영상 플랫폼들이 AI가 만들어낸 창작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규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윤리적, 법적 딜레마에 직면했다.

현재 대부분의 법 체계는 창작을 인간의 행위로 전제하며, 인간 창작자에게만 저작권을 부여한다. 흥경한 미술평론가는 “카메라가 아무리 정교해도 사진의 저작권은 카메라가 아닌 사진가에게 있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설명했다. AI가 창작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단지 프롬프트에 명령어를 내렸다고 해서 창작자라고 부를 순 없다고 본다”며 “그는 단지 ‘프로그램머’ 혹은 ‘엔지니어’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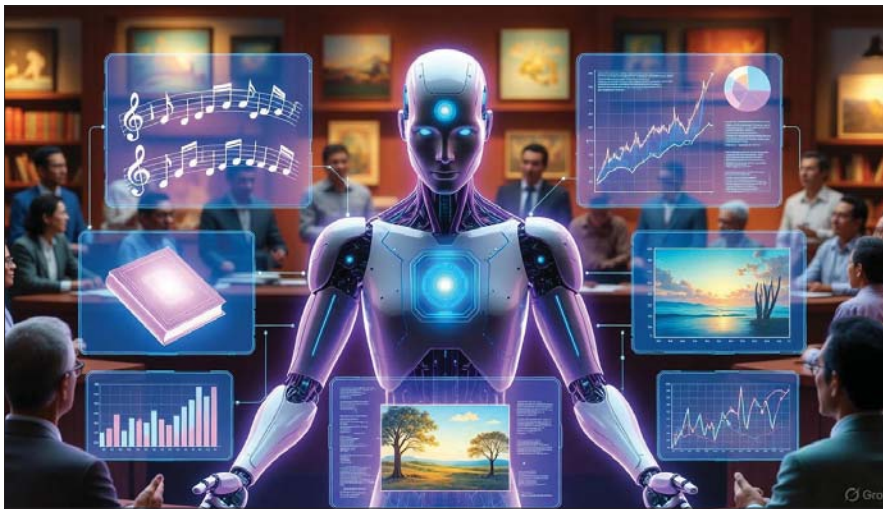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IAAE) 이사장도 “AI가 생성한 콘텐츠에 인간의 기여나 편집이 전혀 들어가지 않았다면 현재 법 체계하에서는 AI가 만든 것이므로 인간의 창작물로 볼 수 없고, 저작권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창작의 주체 논란을 넘어, ‘AI 슬롭(쓰레기)’과 ‘진정한 AI 창작품’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흥 평론가는 ‘AI 슬롭’을 인간의 깊은 개입 없이 프롬프트 몇 줄로 대량 생산된 콘텐츠로 규정하며, 반복적인 시각적 클리셰나 내러티브의 공허함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진정한 AI 창작”은 AI를 도구이자 협업자로 활용하되, 인간 창작자의 명확한 비전과 미적 판단, 그리고 반복적인 개입이 있는 경우라고 부연했다.

흥 평론가는 “AI 슬롭이나, AI 창작품 하나의 구분은 가치 판단의 문제”라며 “과거에도 ‘진정한 사진’과 ‘단순한 스냅샷’을 구분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 경계가 흐려졌다”고 덧붙였다.

전 이사장은 AI가 진정한 창작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AI가 생성해내는 콘텐츠는 인간이 만들어낸 수많은 작품들과 예술품들을 학습한 뒤 알고리즘에 의해 무작위로 재구성해 내놓은 결과물일 뿐이라는 것이다.

AI가 생성한 콘텐츠의 저작권과 윤리



그록으로 생성한 ‘인공지능 창작 활용’ 이미지

적 책임 소재는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다. 전 이사장은 “AI가 기존의 작품과 저작물들을 학습해 생성된 결과물이 기존 예술품이나 저작물과 유사하게 나올 경우 ‘저작권 침해’나 ‘표절’이 될 수 있다”며 “이용자는 AI로 생성된 콘텐츠가 기존 저작물이나 화풍, 디자인과 유사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윤리적이고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인간의 창작물을 집어삼킨 생성형 AI 발 콘텐츠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흥경한 평론가는 단기적으로 창작자 보호를 위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AI 찬양론자들은 AI가 제공하는 데이터가 다른 창작자들에게 고통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외면한다”며 “자신의 저작권은 강조하면서 AI가 제공하는 타인의 저작권에는 무감각하다”고 꼬집었다.

AI 콘텐츠 확산에 따라 글로벌 플랫폼의 정책 기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유튜브는 크리에이터가 변경 혹은 합성된 미디어로 사실적으로 보이는 콘텐츠를 제작했을 경우, 동영상 설명 정보에 생성형 AI 라벨을 표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유튜브 관계자는 “스크립트 생성, 콘텐츠 아이디어 구상, 자동 자막과 같은 생산성 향상 목적 또는 합성 미디어가 비현실적이거나 변경 사항이 미미한 경우 크리에이터에게 생성형 AI 이용 사실 공개를 요구하지 않는다”면서도 “건강·뉴스·선거·금융 등 민감한 주제를 다루는 콘텐츠에서 AI 사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유튜브가 직접 라벨을 적용하기도 한다”고 밝혔다.

흥 평론가는 AI 아트가 제도권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개념적 명확성과 미술사적 맥락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AI를 쓴 이유와 그것이 작품의 의미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며 “미술사적 맥락 안에서 기존 예술

담론과 연결고리가 드러나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AI를 말할 때 지금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비판적 거리두기”라며 “AI 생성 콘텐츠가 제기하는 문제들, 편향성, 저작권, 노동 등을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활용범위 등 논란 지속… “제도적 접근 필요”

» 1면 ‘사라지는 인간 창작’서 계속

이달 뉴질랜드에서는 두 저명한 소설가의 작품 표지가 AI로 제작됐다는 이유로 최고 권위 문학상 후보에서 제외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예술의 영역에 AI가 침투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내 언론사들은 2026년 신춘문에 공고에 “생성형 AI로 창작된 사실이 확인되면 당선은 취소된다”는 문구를 내걸었다.

전세계 창작자들이 활동하는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올 7월 유튜브가 AI 생성 영상 제재 계획을 발표함과 동시에 ‘AI 콘텐츠가 전면 차단된다’는 오해가 번졌다. 이에 유튜브는 AI 슬롭(Slop·쓰레기)만이 금지 대상이라는 사실

을 명확히 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다.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을 통해 AI는 인간에게 되묻고 있다. ‘예술’과 ‘창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AI를 이용해 만든 콘텐츠를 예술 작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AI를 창작의 주체로 보는지, 창작에서 어느 선까지 AI 활용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왜 어떤 결과물은 ‘AI 쓰레기’가 되고, 다른 것들은 ‘작품’으로 불리는지를 묻는다.

전문가들은 현 단계에서 AI는 창작의 도구에 불과하지만, 기술 확장 속도를 고려해 향후 인간과 AI의 협업 모델을 마련하고 새로운 제도적 기준을 확립해 나갈 것을 조언한다.

/김현정 기자

파트너 시장 전환… 수출 증대 전환점

» 1면 ‘중동의 선택은 K방산’서 계속

특히 3분기 단일 분기 수출액이 16조 원을 넘어서며 상반기 누적 실적을 단숨에 추월했다.

업계에서는 중동과의 협력 범위가 확대될수록 공동개발·현지생산방식의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적 상승 폭은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중동은 더 이상 완제품을 들여오는 구매 시장이 아니라 개발 단계부터 손을 잡고 가는 파트너 시장으

로 확실히 성격이 바뀌고 있다”며 “국내 기업들에게는 R&D 부담이 커지는 대신 수출 규모는 더 커질 수 있는 전환점을 맞고 있다”고 말했다.

DB증권 서재호 연구원은 “중동의 고온·사막지형 특성에 따라 기동화·내구성 중심 한국형 장비 수요가 커지면서 ‘K-방산 제2의 먹거리’로 평가되고 있다”며 “미국산 무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사우디는 대체 공급원을 찾는 상황이고 한국의 즉시 납기·가격 경쟁력이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국산콩
영양개선
캠페인

국산콩 건강하고 맛있게 먹기

건강한 식생활 관리,
콩을 제대로 먹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 매일매일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두유 한 컵	 두부 3-4조각	 된장찌개 한 그릇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orea Agro-Fisheries & Food Trade Corporation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